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해고가 부당하다는 항소, 해율은 기존 판단을 지켰습니다.

상대방 항소 전부 기각

항소 방어

징계해고 관련 재심판정 유지 · 상대방 항소비용 부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원고, 항소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피고, 피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법무법인 해율

제1심판결
변론종결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 10. 27. 선고
2022. 9. 23.
2022. 11. 1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 기관은 해고된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참여했습니다. 1심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항소하면서 분쟁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인사조치가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 유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불복에 대응하여 그 판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02 결과를 가른 쟁점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검토하면서 일부 문구와 징계기준에 관한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받은 행위에 적용되는 내부 규정의 내용과 징계 수준이 다루어졌습니다.

규정에 적힌 징계기준과 실제 비위행위의 관계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결론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정과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징계해고 관련 재심판정 유지 · 상대방 항소비용 부담

사업을 흔드는 분쟁, 이제 책임과 대가를 분명히 하십시오.

해고가 부당하다며 이어진 항소. 해울은 상대방 항소를 전부 막았습니다.

- 노동위원회 판단을 법원에서도 지켜야 한다면?
- 사내 규정에 따른 징계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받았다면?
- 직원의 금품 수수와 인사조치를 둘러싸고 다툰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울과 함께한 소송

법무법인 해울은 의뢰 기관의 소송대리인으로 항소심에 참여했습니다. 의뢰 기관은 피고인 노동위원회 측을 보조하는 참가인의 지위에서 근로자의 취소청구에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필요한 부분을 고쳐 쓴 뒤 나머지 1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성과는 근로자가 항소로 다툼 재심판정의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발생한 부분을 포함한 항소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항소심에서는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사 분쟁은 내부 징계로 끝나지 않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울은 이미 시작된 분쟁의 다음 단계에서도 의뢰 기관의 입장을 지킨 결과를 남겼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며 이어진 항소. 해울은 상대방 항소를 전부 막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울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며 이어진 항소. 해울은 상대방 항소를 전부 막았습니다.

- 기관의 징계 판단을 뒷받침할 기록을 정리해야 한다면?
- 1심에서 이겼지만 항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 징계해고한 직원이 항소해 분쟁이 다시 시작됐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